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2, pp.361-399
<https://doi.org/10.29212/mh.2024..132.36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윌리엄 드퓨이 장군의 경험이 미 육군의 ‘적극방어’ 교리개발에 미친 영향

박솔규 |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

목 차

1. 서 론
2. 제2차 세계대전 시기
: 막대한 출혈로 깨우친 전투의 본질
3. 냉전 초기와 베트남전 시기
: 성숙해진 전술관
4. 교리·훈련 사령부 시기
: 육군을 바꾸다
5. 결 론

초 록 이 논문은 1970년대 미육군 교리 개혁의 주도자인 윌리엄 드퓨이(William E. Depuy) 장군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로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그의 참전경험과 군경력 전반을 통해 전술적 관점이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미 육군 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여 미육군 지상군교리의 철학과 논리를 파악하는 기반연구가 되고자 한다.

제2차 세계대전 시기 드퓨이는 당시 미육군의 낙후한 전술 수준과 부족한 훈련으로 막대한 전상자가 발생한 제90보병사단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독일군과의 격렬한 전투를 경험한다. 이 경험을 기반으로 화력기지, 엄호망 같은 본인의 전술을 개발하고, 미육군의 개혁을 주도하는 것을 본인의 사명으로 한다.

드퓨이는 신설된 훈련교리사령부(TRADOC)의 초대사령관으로서 베트남전으로 인해 '부서진 육군'을 재건하는 임무를 수행하였다. 4차 중동전의 교훈과 평생의 전술적 관점을 바탕으로 그의 지지자인 고먼(Pual F. Gorman) 장군과 스타리(Donn A. Starry) 장군은 막강한 소련·바르샤바조약기구 군대에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적극방어' 교리를 개발하여 1976년 'FM 100-5, 작전' 교범으로 작성하여 발표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과 제4차 중동전쟁의 교훈을 바탕으로 형성된 엄폐·제압·기동·지형활용·화력에 관한 그의 교리는 발표와 동시에 격렬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았으며, 그의 혁신적인 교리와 공헌은 미 육군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주제어 : 미육군, 적극방어, 교리, 작전, 공지전투, 제병협동, 드퓨이, 스타리, 전술

(원고투고일 : 2024. 7. 10, 심사수정일 : 2024. 8. 17, 게재확정일 : 2024. 9. 7.)

1. 서론

1970년대 초 미육군은 내·외적으로 모두 위기를 맞고 있었다. 외부적으로 소련은 1965년경 핵전력을 미국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건설하고 있었고, 미국이 베트남에서 막대한 군비를 소모하고 있는 동안 거대한 소련군과 바르샤바조약군(Warsaw Pact)은 재래식 전력을 현대화하였다. 내부적으로는 지난 10여 년간의 베트남전의 자원소모와 패배에 가까운 철군 이후 감군, 예산삭감, 만연한 반군감정 등으로 미육군은 조직의 정체성과 사기를 잃을 심각한 위기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위기상황 하에서 미육군은 유럽에서 한세대 이상 진보하고 숫적으로 거대한 소련과 바르샤바조약군에 수적으로 열세였을 뿐 아니라 즉시 병력을 동원하여 전장에 투입가능한 소련에 비해 본토에서 동원할 경우 유럽까지 원정군을 긴 시간동안 이동시켜야하는 심각하게 불리한 위치였다. 게다가 1973년 발발한 4차 중동전이 보여준 현대전의 치명성과 속도는 기존의 미육군의 전통적인 동원군(Mobilization Army)으로 치루는 방법으로는 전쟁에서 생존과 승리를 보장할 수 없었기에 미육군은 교리재검토라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했다¹⁾

1) Paul H. Herbert, *Deciding What Has to Be Done: General William E. DePuy and the 1976 Edition of FM 100-5, Operations*,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88), p. 6 ; Erick M. Nyingi, *Complexity and Design Leadership: The Design of Active Defense and AirLand Battle Doctrines*,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19), p. 16.

1973년 창설된 교리·훈련사령부의 초대사령관 윌리엄 드퓨이(William E. DePuy) 장군은 이러한 심각한 미육군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부서진 육군을 바꾸기’위한 소명과도 같은 임무를 수행하였다. 그의 개혁적인 임무 수행의 정점은 새로운 현대전 면전 교리를 개발하여 미육군 교리사에 가장 혁신적인 ‘FM 100-5, 작전’ 1976년판 ‘적극방어’를 발간하는 것으로 완성되었다.²⁾ FM 100-5 교범은 육군내 모든 교범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기준교범(capstone manual)이었고, 육군의 최상부 장성들의 전술교리 합의를 공식적인 인증형태로 공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드퓨이에게 이 교범의 완성은 빠른 시간내에 육군을 바꾸기 위한 결정적인 목표가 되었다.

드퓨이의 미육군 변혁에 대한 공헌은 여러 연구들에서 미육군의 교리사에서 가장 혁신적인 변혁으로 인정 받았으며, 드퓨이 연구자인 리처드 스웨인(Richard M. Swain)은 “베트남전 패배 이후 미육군이 붕괴로부터 회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물일 것 같다”라는 기술을 하기도 했다.³⁾ 이렇듯 ‘FM 100-5, 작전’ 1976년판의 ‘적극방어’ 교리는 윌리엄 드퓨이 장군의 경험과 개인적인 전술적 사고를 강렬하게 나타냈기 때문에, ‘적극방어’ 교리에 대한 연구의 시작은 드퓨이 장군으로부터 시작한다.

미육군내 교리연구기관과 교육기관에서는 FM 100-5의 1976년판, 1982년판, 1986년판으로 이어지는 이 시기의 연구가 활발

2) *FM 100-5 Operations*, Department of the Army(1976). 한국군에서는 미 FM 100-5 Operations를 1970년에는 야전교범 100-5 ‘작전요무령’으로 번역하여 운용하였으며, 이후 ‘지상작전’, ‘지상군기본교리’, ‘지상군기본교리’ 순의 명칭으로 발간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군의 교범 명칭과는 별도로 미육군의 ‘Operations’를 직역하여 ‘작전’으로 명칭하여 표기한다. 박술규, 「적극방어 교리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 미육군 FM 100-5 작전 교범 1976년판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군사』 126, 2023, 121쪽.

3) Nyingi, *ibid.* p. 20.

한 편이며, 이들 교범의 작성과정과 주 작성자인 드퓨이 장군, 돈 스타리(Donn A. Starry) 장군, 폴 고먼(Paul F. Gorman) 장군 등의 연구가 상당히 진척되어 있다.⁴⁾ 1998년 허버트(Paul H. Herbert)의 명저술인 “Deciding What Has to Be Done”의 연구가 발표되면서 1976년판 교범의 작성과정 전체를 조명할 수 있었으며, 동년인 1988년 브라운리(Romie L. Brownlee)가 직접 드퓨이를 인터뷰하며 작성한 “Changing An Army”로 드퓨이의 군경력과 전술관 등이 자세하게 소개될 수 있었다. 드퓨이 사후인 1994년에는 그의 지지자이자 적극방어 교리의 주작성자인 고먼이 드퓨이의 전술관과 훈련관을 저술한 “The Secret of Future Victories”를 출간하기도 하였으며, 1995년에는 스웨인(Richard M. Swain)이 드퓨이의 생전 저술을 선별한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를 출간하였다. 비교적 최근 연구인 2008년 골(Henry G. Gole)의 드퓨이 평전인 “General William E. DePuy : Preparing The Army for Modern War”으로 인간 드퓨이의 총체적인 면을 조명할 수 있었으며, 2000년부터 현재까지도 미육군 교육기관 내에서 독일군이 이스라엘 교리 및 기계화보병 교리의 선구자로 드퓨이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4) Romie L. Brownlee, Mullen III William J., *Changing An Army An Oral History of General William E. DePuy, Retired*, U.S. Military History Institute, Washington, D.C. :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1988) ; Robert A. Doughty,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 Paul H. Herbert, *ibid.* ; Paul F. Gorman, *Cardinal Point: An Oral History - Training Soldiers and Becoming a Strategist in Peace and War*,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1.; Henry G. Gole, *General William E. DePuy : Preparing The Army for Modern War*,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8. ; Paul F. Gorman, *The Secret of Future Victorie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1994).

미육군의 현용교리나 교범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군을 중심으로 ‘공지전투’⁵⁾와 ‘다영역작전’에 관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완성된 교리의 운용과 교범의 문구해석에 치중되어 교리 개발 간 추진배경과 논쟁과정 등 교리작성자들의 철학과 이들의 전술관이 반영되어 있는 교리의 통섭적인 진의를 파악하는 연구는 발전되어 있지 않다. 특히 공지전투 교리 이전의 1970년대 미육군 교리의 큰 변곡점이었던 ‘적극방어’교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 전반적으로 미흡한 실정으로 1970년대부터 현용 교리까지 이어지는 미육군 지상군교리의 철학과 논리를 파악하는 교리작성사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적극방어’로 미육군 교리의 큰 변곡점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드류이 장군의 개인연구를 통해 그의 군경력, 전술관 등이 제2차 세계대전, 냉전 초기와 베트남전, 4차 중동전을 통해 어떻게 경험되고 형성되어 미육군 교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하고, 걸프전과 현재까지 미육군의 교리의 철학의 기반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육군의 작전분야 교리 연구에서 ‘문구적’, ‘결론지향적’인 연구를 탈피할 수 있는 철학적인 참고기반이 되는 것에 기여하고자 한다.

5) 1982년판 FM 100-5 작전교범에서 제시된 교리. *FM 100-5 Operations*, 1982,

2. 제2차 세계대전 시기 : 막대한 출혈로 깨우친 전투의 본질

가. 임관 및 참전준비

1937년 사우스다코다 주립대에 입학한 드퓨이는 병역대상자에게 의무적으로 요구되었던 ROTC(Reserve Officer Training Corps) 훈련과 제34보병사단 제109공병연대에서 주방위군 병사로 병행 근무를 하였다. 1941년 임관 후 드퓨이는 제20보병연대에 소속되어 본격적인 군경력을 시작한다.

1935년까지 약 14만명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던 미군은 유럽에서 긴장이 고조되면서 1936년부터 1940년까지 약 27만명으로 증가했고, 드퓨이가 임관한 1941년에는 150만명 수준으로, 다음 해인 1942년에는 300만명 이상으로 증가했다. 미육군은 제2차 세계대전의 참전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1940년 레슬리 맥네어(Lesley J. McNair)⁶⁾ 장군을 육군본부 참모장으로 임명하면서 부대편성, 훈련, 장비획득 등의 많은 업무를 위임하여 준비하게 하였고, 맥네어는 1942년에는 미본토의 육군야전부대들을 관할하는 육군지상군(Army Ground Forces, AGF) 사령관이 되어 독일군의 전격전을 많이 참조한 기동훈련으로 기동전을 준

6) 레슬리 맥네어는 군장비 및 무기의 설계·평가의 전문가였고 행정과 군사교육·훈련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육군본부 참모장, 육군지상군(AGF) 사령관 등을 역임한다. AGF 사령관으로 거대한 육군을 양성하는 중추이 되었고, 대전차포, 구축전차, 전차 등의 설계와 획득에 주요 인사로 활동했다.

비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맥네어는 미육군의 사단들이 본격적으로 유럽전구에 투입되는 시기인 1943~1944년까지 약 2년간 미대륙에서 확장명령연습(extended-order drill)이라는 20여년만의 대규모의 명령절차훈련과 모의기동훈련을 통해 대전초기 독일군이 수행하였던 현대기동전을 체험하고 검증할 수 있게 하였고, 미육군 사단들을 차량으로 완전 기계화하여 사단당 4천두의 군마를 운용하던 독일군 사단들보다 기동력 측면에서 훨씬 우월하게 편성하였다.⁷⁾ 하지만 대규모 명령하달절차와 기동훈련에 치중한 나머지 소부대의 교전훈련에 대해서는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었는데, 당시 유럽전에 본격참전을 위한 미육군의 훈련은 한세대 전의 제1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아군의 지원포격을 따라 전진하는 포격행진(marching fire)위주로 진행되어 수년간의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참전 이후 큰 인명손실을 초래했다.⁸⁾

드퓨이는 이시기 제20보병연대의 소대장과 대대 본부중대장으로 6개월간 근무하며 1,000마일이 넘는 기동훈련을 했으며, 곧 새로 신설되는 제90보병사단 제357보병연대에 편성되었다.⁹⁾ 후일 드퓨이는 이러한 미육군 보병부대들의 훈련을 “범죄적 어리석음(criminal folly)”으로, 그리고 1937년 ROTC훈련과정부터 1944년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때까지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우리는 훈련받지 않았습시다”라고 회고했다. 드퓨이가 회고

7) 맥네어의 기동훈련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공세적 기동전이라는 개념을 미군에게 훈련시켰지만 모의훈련에서 대전차포와 구축전차(tank destroyer) 등의 무기획득 같은 본인이 의도한 바를 관철하기 위해 판정기준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만들어 유럽전구에서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Gorman, *ibid*, pp. II-7~II-33.

8) 후일 유럽전구에서 기동전으로 유명한 조지 패튼(George S. Patton) 장군은 1930년대부터 미육군의 뒤쳐진 전술과 훈련에 대해 “교실의 행사수준, 소총수들의 로맨스” 등으로 맹렬한 비판을 가했다. Gorman, *Ibid*, p. II-6.

9) 드퓨이는 357연대 근무 간에 통신학교에서 기본교육을 수료하고 대대·연대 통신장교, 인사장교, 본부중대장, 공병장교 등의 다양한 직책을 수행했다.

하는 당시 훈련은 맥네어의 강조사항 대로 병력을 차량에 탑승시켜 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제시간에 도착시키는 절차 훈련에 집중하고 있었고, 병기본 훈련의 수행시간을 달성하는 것만이 목표가 되었다는 것이었다.¹⁰⁾ 맥네어도 이같은 점을 충분히 인지하였는지 “장님이 장님을 이끈다”라고 언급했고, 훈련받지 않은 장교들이 부대를 훈련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비판했다.¹¹⁾ 더 큰 문제는 미육군이 동맹국이던 프랑스와 영국의 경험을 반영하지도 않았고, 직접 1942년 북아프리카에 참전하여 카세린 협곡 전투(Battle of Kasserine Pass)같이 독일군과의 격렬한 전투에서 큰 참패를 겪었음에도 그 교훈이나 대응책이 본토에 있는 훈련중인 부대들에게 강조되지도 않고 훈련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¹²⁾

더 심각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도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에 있는데, 인력적인 문제에서 당시 미육군의 부대들은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기 위해 기존의 부대들에서 인력을 전출시켜 부대가 훈련경험을 축적하지 못하고 혼란해졌다는 점이었다. 드퓨이가 소속되었던 제90보병사단만 보더라도 제104보병사단을 창설하기 위해 1,300명 이상의 장병을 전출시켰고, 새 인력을 보충할 때마다 훈련은 제자리걸음을 했다.¹³⁾

10) 당시 미육군에서는 ‘M-1 pencil’이라는 용어가 있었는데, 연필로 사격훈련점수를 기록할 때 합격하지 않은 기록을 합격으로 거짓 작성하여 서류상으로만 훈련성고를 달성하는 것이 만연하였기 때문이다. Gole, *Ibid*, p. 29.

11) 당시에는 동원된 연방군 예비역장교들 뿐 아니라 정규군 장교들조차 제대로 훈련이 안되어 있었다. Gole, *Ibid*, p.25. ; 장님이 장님을 이끈다는 표현은 드퓨이도 동일한 표현을 언급하며, 당시 부대가 25마일 행군을 자주했는데 이는 부대구성원 모두가 25마일 행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자조적 회고를 한다. Brownlee, *Ibid*, pp. 9~10.

12) Brownlee, *Ibid*, p. 10.

13) 이 같은 인적자원의 순환은 1942년부터 태평양 전구와 유럽전구에서 사상자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이 부대들에 인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 더 극심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Gole, *Ibid*, p.29 ; 1942년 3월 본토의 미육군은 32개 사단규모였으나 한해

90사단은 1942년 12월, 1943년 1월 두 번의 평가를 받았고 결과는 참담했다. 사단본부는 통제는 물론 전술상황 이해도 부족했으며, 병력들은 무리를 짓고, 은폐를 하지 못했으며, 엄호도 안되고, 정찰도 못했으며, 359보병연대의 예하대대들은 서로 오사격을 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90사단은 미국내 텍사스,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등 다양한 지형에서 훈련을 지속하였으나, 크게 개선된 사항이 없이 1944년 3월 유럽전구로 투입을 위해 영국으로 이동한다.¹⁴⁾

나. 유럽전구 전투

제2차 세계대전의 유럽전구 전투는 전후 미육군과 장교단에 게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특히 1970년대까지 당시 50대인 고위 장교단들이 세계대전 참전의 경험자로 드류이 역시 중대장, 연대참모, 대대장, 사단참모 등의 직책으로 세계대전을 겪으며 깊은 영향을 받았다. 그는 유럽 전역을 겪은 경험을 사석이나 공적인 모임과 소통에서 자주 언급하였고 30~40년이 지난후에도 구체적으로 세부사항까지 언급하기도 했다. 이 시기의 참전 경험들은 그의 모든 전술적 사고의 기초가 되었으며 훌륭한 자산이 되었는데, 특히 다른 세계대전 참전자들인 고위장교단들에 비해 더욱 드류이 만의 사명의식과 독자적인 전술관을 확립하게 한점은 90사단의 유럽전구 초기의 무능하고 불운한 전투수행에서 기인한다.

에만 38개 사단을 신설하였고, 이후 1945년까지 3년간 86개 사단을 증설했다. 이 같은 확장은 인력 뿐 아니라 장비의 수급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Gorman, *Ibid*, II-34~II-35. ; 평균적으로 유럽전구에서 초기 3개월 간의 격렬한 독일군과의 전투로 인해 연대 전력의 100%의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1945년초까지 19개 사단의 47개 연대는 100~200%의 사상자를 보였다. Gorman, *Ibid*, II-43.

14) Gole, *Ibid*, p.33.

영국으로 이동한 90사단은 노르망디 침공을 위해 상륙작전 훈련을 시작했다. 사단이 준비한 계획과 훈련은 올바른 장소에 빠르게 상륙하고, 내륙으로 신속히 진입하여 전일 침투한 공수부대와 연결을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90사단은 1944년 6월 최초 전투참전인 노르망디의 오버로드 작전에서 계획했던 유타해변으로 상륙하지도 못했으며, 해변에서 상륙정들이 지뢰에 큰 손실을 입었다. 상륙 후에는 악명 높은 빌레보카주 지역에서 전투를 치렀고, 하루 만에 드퓨이가 작전장교로 있었던 제357보병연대는 99명의 사상자를 내고 2km밖에 진격하지 못해 공수부대와 연결을 실패하였다. 이 과정에서 357연대는 무모한 정면공격을 반복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며, 예하 3명의 대대장이 모두 교체되었다.¹⁵⁾ 90사단에서 이러한 무능한 지휘관의 실패는 교체는 빈번했는데, 이미 노르망디 전투 이전에 영국에서 사단장과 연대장 중 한명이, 노르망디 상륙 후에는 사단 내 연대장 한명이 해임되었다. 치열한 전투 중에 두명의 대대장이 무단이탈로 체포당했으며, 다른 한명은 본인 스스로 무단이탈 후 자수하여 병사로 강등당하기도 하였다. 결국 노르망디 상륙 직전 해임된 사단장의 후임으로 부임되어 며칠간 사단을 지휘했던 유진 랜드럼(Eugene M. Landrum) 사단장까지 해임되었다. 이런 장교들의 무능력과 해임은 기존의 정규군과 동원된 예비역 연방군 장교들에게서 가리지 않고 모두 발생하였으며, 장교단의 인적수준, 훈련, 전문성, 사명감 등은 드퓨이에게 평생에 걸쳐 중요한 고려요소로 영향을 주었다.¹⁶⁾

15) 상륙 후 6일간 드퓨이의 357연대는 1,047의 사상자를 내었고, 연속 13일간 어떤 종류의 정규 휴식과 수면 없이 격렬한 전투를 지속하였다. Brownlee, *Ibid*, p. 38.

16) 드퓨이는 실패로 대표되는 90사단과 대비되는 성공적인 제88사단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으며, 88사단의 성공요인으로 사단장인 존 슬론(John E. Sloan) 장군의 뛰어난 리더십을 지목하고 있다. Gorman, *Ibid*, pp. II-83~88.

레이먼드 맥클레인(Raymond S. McLain) 준장으로 사단장을 교체한 이후에도 90사단은 셀부르 공세전에서 독일군에게 100여명 이상이 포로로 잡히는 졸전을 면치 못했으며, 몽카스트레 근처에서는 고지대의 독일군에게 정면공격을 감행하다가 독일군 포병에게 큰 피해를 입고 많은 수의 병력들이 독일군에게 포로로 잡혔다. 90사단은 전투에 참여한지 2개월여 만에 막대한 손실로 병사의 100%와 장교의 150%를 대체하였는데, 특히 접적전투를 담당하는 소총중대들은 손실률이 200~400%에 달했다.¹⁷⁾ 이런 90사단의 졸전에 대해 드퓨이는 훈련기간에 단순히 포격행진 훈련만을 하면서 전투시에는 결국 정면공격만을 지시했던 무능한 지휘부의 작전개념을 가장 큰 요인으로 보았고, 드퓨이에게 올바른 교리와 훈련으로 다음 전쟁에서 인명손실을 막아야 한다는 사명을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대부분 장병들이 보이는 피동적 참여의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후일 ‘FM 100-5, 작전’ 1976년판 작성 간 일반적인 미군의 군사사상인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되었다.¹⁸⁾

물론 이렇게 90사단을 비롯한 미육군이 유럽전구에서 큰 피해

17) 이런 90사단의 손실률은 최종적으로 참전 11개월 동안 196%(27,618명)의 인원교체를 보였으며, 당시 유럽전구에 작전중인 61개의 미육군 사단중 6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물론 여기에는 90사단의 총체적인 무능과 불운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단의 전투일이 308일로 다른 사단들 보다 높은 측면도 있었고, 20개의 사단이 인원교체율이 100%를 상회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Gole, *Ibid*, p. 32. ; 맥클레인 사단장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좋은 편인데, 오마 브래들리(Omar N. Bradley)는 90사단을 최악의 훈련을 받은 사단 중 하나이며 실망스런 사단으로 지칭했지만 나중에 몇 달간 맥클레인 사단장이 사단을 발전시켰다고 제19군단장으로 영전시켰다. 또한 맥클레인에 대한 사단 내에 평가도 준수한 편이었는데, 많은 시간을 지휘소가 아닌 전투부대와 함께 전선에서 진두지휘하였으며, 공세적으로 전투를 지휘했다는 평이 많다. Gole, *Ibid*, pp. 41~42.

18) 드퓨이에게 거부된 교범의 초안 작성자인 쿠쉬먼 장군은 미군은 병사의 놀라운 기발함과 상상력을 기반으로 전투력이 발휘되기 때문에 부하들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드퓨이는 보통의 인간은 진정한 주도성 발휘가 힘들기 때문에 명확한 임무와 훈련을 부여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박솔규, 전거서, p. 145.

를 입은 것에는 독일 국방군의 뛰어난 전술에도 원인이 있었다. 독일군은 방어선을 위해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화기를 위장배치하고, 추가적으로 전투차량에 탑재된 화기를 보병과 통합하는 '제압'(suppression)이라 명칭되는 전술에 뛰어났다. 당시 미군이 제1차 세계대전 식의 단순한 1열 진지를 구성했던 것과 달리 독일군은 지형을 고려하여 중심 깊게 수개열의 진지를 교차 편성하였으며, 은폐·엄폐를 상태에서 미군을 살상지역에 유인하여 분대에 편성된 기관총으로 적군의 기동을 저지한 이후 박격포와 지원포병화력으로 타격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¹⁹⁾ 반면에 미군은 분대에 20연발 BAR소총 외에는 제압용이나 반격용으로 탄막을 형성할 기관총형의 자동화기가 없었으며, 대신 소총수 개개인이 발사속도가 빠른 강력한 반자동소총인 M-1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단발 볼트액션식 소총인 Kar98k로 무장한 독일군 소총수의 화력을 발사속도 상으로 압도해야 되었으나, 분대전투에서 잘 은폐·엄폐된 상태인 독일군을 식별할 수 없어 M-1의 정밀하고 뛰어난 연발사격의 화력은 무용지물이 되어 버렸다.²⁰⁾

19) “제가 확신한 것은 제압이었습니다. 독일군은 기관총을 이용한 제압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기관총을 쏘고 병사들을 땅바닥으로 몰아넣은 다음 우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독일군이 사격할수록 우리 병사들은 사격을 덜 했고, 점점 더 위험해져 결국 모든 병사들이 총을 쏘지 않게 되자 독일군이 우리 병사들을 덮치거나 우리 병사들 중 일부를 생포하거나 수류탄을 던져 우리 병사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Brownlee, *Ibid*, pp. 43~44.; 독일군 분대전술의 핵심은 기관총에 있었고, 분대가 보유한 기관총의 휴대탄약량만 약 4,000발에 달했다. Stephen Bull, *Second World War Infantry Tactics : The European Theatre*, Pen&Sword Military, 2012.

20) “그러다가 가끔씩 '미친 듯이' 사격을 해서 우리 화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 그는 목표물을 쏘고 명중시키는 훈련을 받았지만, 실제 전투에서는 목표물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격에 효용이 없었습니다.” Brownlee, *Ibid*, p. 11.; “소총병은 기동과 정밀사격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M-1 소총은 정밀 무기였지만 정밀 표적이 없었습니다. ... 그래서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습니다.” Brownlee, *Ibid*, p. 30.

노르망디 상륙 이후 2개월이 되자 독일군은 프랑스지역에서 연합국에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후퇴를 하고 있었고, 연합국은 팔레즈지역에서 독일국방군 제7군에 대해 거대한 포위를 하고 있었다. 조지 패튼(George S. Patton)장군의 제3야전군으로 소속으로 변경된 90사단은 이 팔레즈 포위전²¹⁾에서 남쪽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 90사단은 독일군의 병목지점을 관측할 지점을 점령하여 독일군의 대탈주를 봉쇄하려고 하였는데, 탈주중인 독일군 부대의 선도를 구축전차로 파괴하여 제대를 정차시킨 후 강력한 포병화력과 항공지원으로 수많은 기갑차량들을 파괴하였다. 드퓨이 역시 이 작전에 참여하여 후일 큰 영향을 받는 화력의 중요성을 체감하였으며, 보병의 가장 큰 임무 중 하나가 포병관측을 위한 지점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언급을 하기도 하였다.²²⁾

독일군이 전력과 사기에서 무너지는 만큼이나 맥레인 사단장이 이끄는 90사단과 바스 연대장이 이끄는 357연대도 사기가 고양되어가고 성과를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런 부대들의 변화는 유럽전구에서 미육군의 전투적응과 숙련의 모습이기도 했지만 전투결과에 따른 잘 선별된 지휘관들의 리더십이라는 것이 드퓨이의 평가였다. 1944년 10월 중순 유명한 제임스 밴플리트(James A. Van Fleet) 소장이 사단장이 되었다. 이후 90사단과 밴플리트 사단장은 유럽전구에서 가장 힘든 전투인 메츠 요새 주변 전투에 참가하였다. 이 전역에서 90사단은 악천후 속에서 적의 도시화된 지역과 요새화된 지역²³⁾을 힘겹게 우회하여

21) 1944년 8월, 팔레즈 포위전에서 독일군의 탈출로는 혼잡했고 차량들이 도로에서 밀집해 있기 마련이었는데, 연합국에서는 이 밀집차량에 대해서 전술적 용단폭격으로 일격에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유명하다.

22) 드퓨이는 이런 언급을 여러 논문과 강연에서 자주 하였는데, 이에 대해 보병병과의 반발을 많이 받았고, 후일 적극방어 교리가 화력에 너무 치중하고 보병의 주도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공격하였는데, 드퓨이는 연대 작전과장과 대대장²⁴⁾으로 간접접근전략으로서의 우회공격의 중요성을 체감하였다.

이전까지 90사단의 가장 큰 문제점은 독일군 방어선을 정면공격하는데 있었다. 적이 울타리, 강둑, 언덕 등 어느 지형에 있던 정면공격을 감행하여 큰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이후 지휘관이 교체되고 메츠 전투에 이르러 소규모 분대가 침투하여 주요 진지를 점령하고 후방을 공격하는 간접접근 방법을 사용하여 성공하였다. 이 전투는 드퓨이에게 강한 영향을 주는 교훈이 되었다.²⁵⁾ 이때의 경험으로 드퓨이는 강력한 적의 진지를 정면공격하는 어리석음 대신 뛰어난 집권화된 작전계획을 기반으로 한 우회공격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강조하였는데, 이 때문에 분권화된 예하 부대들의 주도성(initiative)을 강조하는 미육군내 주류들에게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드퓨이는 예하 지휘관들에게 모호한 계획만으로 자유만을 부여하는 것은 지휘관의 임무를 방기하는 것으로, 그가 강조하는 돌파, 침투, 간접접근과 같은 전술은 예하 지휘관들의 주도성과 적극성이 주요 요구되는 것으로 이를 '집중화된 아이디어, 분산된 실행'이라고 설명했다.²⁶⁾

또한 드퓨이는 미군에게 강력한 전투력을 보여준 독일군의 전술적 기술들을 참고하여 부대 지휘와 작전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독일군은 적의 진지에 포병화력 같은 많은 양의 간접

23) 독일군은 운하, 강 등의 지형지물과 알약상자(pillbox) 형태로 묘사되는 타원형의 콘크리트 대형진지를 다수 구축하여 결합한 강력한 방어를 하였다.

24) 1944년 12월, 모젤과 자르지역 전투간 연대장은 예하 1대대장의 무능력에 해임하고, 즉시 연대 작전과장이었던 드퓨이에게 대대를 지휘하게 하였다.

25) Herbert, *Ibid*, pp. 14~15.

26) 1988년 이 부분에서 폴 허버트 역시 드퓨이의 모순을 그가 강조하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침과 상이한 측면이라고 지적한다. Herbert, *Ibid*, p. 16. ; 하지만 동년인 1988년 브라운리와와의 인터뷰에서 드퓨이는 이를 정면 반박하는 일화를 소개하는 등 이에 대해 오랫동안 반박해 왔다. Brownlee, *Ibid*, p. 61.

사격을 퍼부어 제압하고 공격하는 미군의 전술과는 다르게 차량에 탑재한 기관총 같은 직사화기를 활용하는 제압을 중시하였는데, 드퓨이는 이와 유사한 전술을 발지전투 이후에 부대지휘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드퓨이의 대대는 아군 포병지원 범위를 넘어 빠르게 진격하고 있었고, 포병화력지원의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대대의 모든 중기관총을 한 중대에 집중한 뒤 나머지 중대가 적의 측면과 후방에서 적을 공격하기 위해 기동할 때 ‘화력기지(base of fire)’로 명칭된 기관총을 집중한 중대의 화력으로 적을 제압하여 안전한 기동을 추구하였다. 이후 이 ‘화력기지’에 구축전차(tank destroyer)와 박격포를 추가하여 제압 후 기동개념을 강화하였다. 이렇듯 드퓨이는 대전기간 동안 기갑·기계화 부대가 다양한 지형을 가로지르며 빠른 기동을 수행할 수 있는 잠재력에 대한 분명한 인상을 받아 화력과 기동 모두의 사용을 중시했다. 또한 전장의 기술과 전술의 외적인 부분에서도 드퓨이는 독일군의 우수성을 경험하였다. 드퓨이는 당시 참전 미군 장병들에게서 적극성과 공격성에 대해 부족함을 느꼈으며, 이런 장병들은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리고 구체적인 명령이 없으면 책임감이 부족하다고 보았는데,²⁷⁾ 독일군의 소부대 리더십에서는 전투 중 지속적으로 ‘수다(chattering)’를 통해 장교, 부사관, 병사들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들의 지휘방식에 큰 영향을 받아 하급제대 내의 소통 중시를 늘 강조하였다.

27) 이는 부족한 훈련으로 인한 징병군인들의 특성으로 구체적인 훈련 및 명령, 개인적인 책임부여 등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3. 냉전초기와 베트남전 시기 : 성숙해진 전술관

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냉전초기

1953년 드퓨이는 국군참모대학(Armed Forces Staff College) 교육을 거친 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다시 독일의 제5군단의 작전처 훈련보좌관으로 임무를 수행했다. 약 1년간 그는 5군단 예하의 제1사단, 제4사단, 제350보병연대 등의 약 20개 대대를 직접 평가하면서 많은 것을 배워나갔다. 여기서 그는 실전에서 지휘경험이 없는 많은 지휘관들이 전술훈련평가 간 상황인식과 결단력이 부족한 점을 파악했는데, 독일군이 강조한 손끝의 촉감(Fingerspitzengefühl)이라고 부르는 상황인식과 직감을 중시한 드퓨이는 지휘관 주도의 전투지휘를 강조하는 계기가 된다.²⁸⁾

차후 보직으로 드퓨이는 제4보병사단 8보병연대 2대대장으로 근무한다. 여기서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기반으로 그의 '화력기지(base of fire)' 전술대로 그의 부대를 훈련시키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인근의 제2기갑사단의 훈련을 참관하는 기회가 있었는데 부사단장인 해밀턴 호웨즈(Hamilton H. Howze) 준장²⁹⁾의 전술을 경험하게 되었다. 드퓨이는 이를 바탕으로 전장

28) Gole, *Ibid*, pp. 85~87. ; “아마도 제가 군대에서 받은 훈련 중 최고의 훈련이었을 거예요. ... 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를 쉬고 나면 다른 대대를 테스트하곤 했죠. 저는 매년 20개 이상의 대대를 거쳤습니다. ... 전쟁에서 대대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지휘관과 그렇지 않은 지휘관의 실력이 5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시다.” Brownlee, *Ibid*, p. 107.

29) 호웨즈 장군은 1930년 장교로 임관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이탈리아 전선 전투

이동 전술에 대한 제압사격과 기동에 관련한 그의 생각을 구체화하여 발전시켰다. 드퓨이와 유사하게 호웨즈 역시 세계대전의 경험에 영향을 받아 전차의 기동성과 제압사격의 중요성을 실감하였는데, 특히 적의 직사포화를 제압하여 아군의 부대가 결정적인 단계에서 기동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점임을 강조하였다.

호웨즈가 ‘엄호망(overwatch)’을 고안한 출발은 전차가 이동하면서 적의 포화를 무력화하기 어려운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인데, 특히 독일군과 같이 화기진지를 잘 은폐하는 경우에는 더욱 힘들었다. 이상적으로 전차는 정지된 상태에서 사격을 하는 것이 정확도 측면에서 좋았는데³⁰⁾, 이를 고려하여 ‘엄호망’을 구축한 전차가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전차는 적을 공격하는 기동을 하도록 했다. 전차 기동과 유사하게 보병분대, 전차 및 기계화보병 소대들도 ‘엄호망’을 구축하고 기동하게 하였는데, 요점은 적에 대한 제압용 화력을 즉시 투사할 수 있는 안전한 기동여건을 조성하는데 있었다. 이는 드퓨이가 독일군 전술로부터 경험하고 고안한 ‘화력기지’와 본질적으로 일치하지만, 드퓨이는 분대와 소대까지 적용하는 ‘엄호망’이 대대급에서 중대 단위로 적용되는 ‘화력기지’보다 좀더 유연하고 기동에 유동성을 허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대장으로 근무 중이던 드퓨이는 곧 이 전술을 자신의 부대에 적용하여, 본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분대급까지 훈련시키고 시험했다.³¹⁾

를 참전하였으며, 82사단장과 18공수군단장, 제8야전군사령관을 역임하였다. 미육군의 헬리콥터에 인디언부족의 이름을 명명하는 전통을 만들기도 하였으며, 공중기동개념과 미육군 항공교리의 기초를 구축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Brownlee, *Ibid*, p. 108.

30) 현대의 전차는 이동하면서 사격을 하여도 동적포구감지기(dynamic muzzle reference system)를 통해 차체의 유동적인 변화와 무관하게 정지된 상태와 유사한 명중률로 사격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까지는 기동중 사격은 명중률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31) Herbert, *Ibid*, pp. 17~19. ; Brownlee, *Ibid*, pp. 107~108.

하지만 역설적으로 호웨즈와 드퓨이의 진보된 전술운용과 훈련방법을 미육군 장교들 대부분이 이해하지 못했으며, 드퓨이의 대대가 평가받을 시에 평가관들은 한국전에서 전술적으로 자주 운용되었던 고지군에 설치된 시야가 확보되고 견고한 요새형 진지를 구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드퓨이는 독일군의 진지 은엄폐기술을 참고하여 바위, 나무, 덩굴 뒤에 방호와 은엄폐가 보장된 진지를 구축³²⁾하였는데, 평가관들은 시야를 강조하는 진지를 구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였다. 드퓨이 역시 이러한 육군의 주류를 이루고 있던 전술에서 벗어난 것이 자신의 평가에 대해 악영향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감수하고 본인의 의지를 반영하였다.³³⁾

1955년 대대장 근무를 종료하고 대령으로 진급한 드퓨이는 5군단의 부참모장, 제7야전군의 훈련부 차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사상가이자 행동가'(thinker and doer)라는 평가³⁴⁾를 받던

32) 드퓨이가 고안한 개인호는 PAR FOX 또는 parapet foxhole이라고도 명칭되었다. 이 개인호는 큰 바위, 흙무더기 또는 나무 뒤에 파서 정면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중세 성곽식으로 구축하여 전투원들은 이 위장된 정면 엄폐물 뒤에서 45° 각도로 사격을 가했다. 이러한 정면 방호로 인해 직접 사격으로 제압할 수 없게 구축되었는데, 이는 독일군의 진지편성방법이 아닌 드퓨이의 독창적인 고안이다. 1967년 제18보병연대 제1대대가 락난에 설치한 한 진지에서 적과 아군의 사망자 교환 비율은 198대 1에 달했다. Brownlee, *Ibid*, pp. 111. ; Gorman, *Ibid*, p. III-18. ; Gole, *Ibid*, pp. 88~91.

33) “첫 번째 연례 훈련 테스트를 받았을 때, ... 모든 중대와 소대 심판들이 대대 심판에게 달려가 말했습니다. "이 대대는 완전히 불만족스러워요. 그들은 진지를 구축하는 법을 몰라요." ... 그들은 또한 오버워치, 경계,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낮았어요. ... 시작하기는 어려운 방법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rownlee, *Ibid*, pp. 108. ; 드퓨이는 한국전쟁에서 나쁜 습관이 생겼다고 보았다. 고지대군에 구축되어 쉽게 노출되는 큰진지(big forts)는 적에게 “나 여기(here I am), 여기 조준해(aim here)”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Gole, *Ibid*, pp. 91.

34) 드퓨이는 공식적인 석박사 학위과정을 받은 적은 없지만, 당대의 지식인인 헨리 키신저(Henry Kissinger), 사무엘 헌팅턴(Samuel Huntington), 고든 크레이그(Gordon A. Craig) 등과 정기적인 학문 교류가 있었다.

그는 1956년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 육군참모총장실(Office of the Chief of Staff Army, OCSA)에서 3년간 근무하였는데, 당시는 1950년대 팽배한 핵무기와 전략무기 중심의 군사력건설이 한창일 때였다. 이에 드퓨이는 본인의 사고를 정리하여 논문 형태의 글을 게재하기 시작하는데, 보병분대의 개념과 관련한 ‘11인1심’(11 Men 1 Mind, 1958년 3월), 핵무기 중심의 전쟁과 재래식전의 논쟁과 관련한 ‘이중 기능의 경우’(The Case for a Dual Capability, 1960년 1월), 맹목적인 합동성 경향에 관련한 ‘통합: 얼마나 더?’(Unification: How Much More?, 1961년 4월) 등이 있으며, 발표한 논문들 모두 육군의 소부대전술의 전문성과 핵무기와 전략무기 중심의 군사력건설에 대해 반발하며, 재래식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³⁵⁾

1960년 영국의 제국국방대학(Imperial Defence College)에서 1년간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뒤에, 1961년 드퓨이는 제3보병사단 30보병연대 연대장으로 다시 독일 근무를 시작했다. 당시 미육군은 핵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5각편제(Pentomic Organization)의 펜토믹 시대(Pentomic Era)였고, 전통적으로 사단에 3개 보병연대와 연대에 3개 대대가 편성된 기존의 3각 편제와는 달리 사단에 5개 전투단이 편제되어 있었으며, 각 전투단은 5개의 증강된 기동중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각 기동중대는 핵전쟁에서 생존을 위해 M59장갑차로 편제되어 빠른 분산을 강조했고, 사단장이 3개 전투단을 나머지 2개 전투단을 1전투단장인 드퓨이가 맡았다. 펜토믹편제는 핵무기만능주의 정점이던 1957년 시작

35) Swain, *Ibid*, p. ix. 드퓨이의 주장과 유사하게 1961년 케네디 행정부가 들어서자 전략무기 위주의 군사력 건설에서 재래식 전력 형태의 억제전략으로 군사력건설 방향전환이 진행되었다. ; 이런 논문들의 게재로 인해 당시 고위 장성들에게 드퓨이의 명성이 많이 알려졌으며, 윌리엄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C. Westmoreland) 장군 역시 이를 통해 드퓨이를 중용하였다. Gole, *Ibid*, pp. 99.

되었으나 효용성의 부정적평가로 인해 1961년에 폐기되어졌다. 하지만 기동력을 강조했다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드퓨이에게는 오히려 기존의 전통적인 3각편제보다 '엄호망(overwatch)' 개념에 부합하였다. 그는 30·38보병연대로 구성된 임무부대(task force)의 지휘관으로 “보병부대 지휘관으로서 나의 경험의 실질적인 절정”이라고 기술할 만큼 열정적으로 부대를 훈련시키고 지휘하였다.³⁶⁾ 그의 부대는 육군에서 최초로 M113보병수송장갑차(Armored Personnel Carrier, APC)를 운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M59장갑차량보다 좋아진 기동력으로 그는 기동력 중심의 기갑부대처럼 부대를 운용하며, 그가 추구하던 기계화보병의 기동전을 구현하였다. 그는 지속적으로 소대장 이하 수준인 하급지휘자의 뛰어난 리더십을 중시하였는데, 연대장으로서 자주 소대장들의 임무수행을 점검하고 장시간 지도했다.³⁷⁾

나. 베트남전

1964년 드퓨이는 그가 관심이 깊었던 기계화전이 중심이었던 유럽과 전쟁양상이 전혀 다른 베트남으로 떠났다. 초기 2년(1964~1966년)은 전구사령부인 베트남군사지원사령부(MACV, Military Assistance Command in Vietnam)에서 사령관인 웨스트모어랜드(William C. Westmoreland) 장군의 작전참모(J3)로, 1년은 제1보병사단의 사단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이 기간 다른 지휘관들과는 달리 그는 중부유럽에서 구상한 그의 아이디어

36) 당시 전투단의 훈련평가를 주관한 앤드류 굿패스터(Andrew Goodpaster) 준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평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투단 지휘관인 드퓨이 대령의 의심할 여지없는 능력”이라고 드퓨이를 극찬하였다. Gole, *Ibid*, p. 103.

37) 후일 유럽연합국최고사령부(SACEUR) 사령관이 되는 조지 줄완(George A. Joulwan) 장군은 중위 시절을 회고하며, 드퓨이가 한명의 소대장을 지도하기 위해 하루에 몇 시간을 보냈다고 증언했다. Gole, *Ibid*, p. 111.

를 새로운 환경에서 적용하였다.

당시 1사단은 9개의 보병대대로 구성되었으며, 2개는 기계화보병대대로 편제되었다. 이 기간 미군은 로버트 맥나마라(Robert S. McNamara) 국방장관의 주도로 비탑승보병(unmounted infantry)³⁸⁾과 항공수송(air-mobile)이 강조되는 경보병 교리가 중심이 되었던 시대로, 미군은 베트남에서 신속하게 비탑승보병을 전장으로 수송하여 전투를 수행하였다. 1사단은 책임지역인 밀림, 논, 도로, 인구밀도가 매우 낮은 지형 등에서 제9베트콩 사단이 사이공 근처의 인구 밀집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것이 주 임무였다. 부여된 책임구역이 상당히 넓었기 때문에 드류이는 가능한 최소의 병력으로 적과 접촉을 하면서, 결정적인 시기에 적을 격멸하고 철수를 차단할 수 있는 예비대를 충분히 보유하려고 했다. 비록 지형적 환경과 상대하는 적의 성격은 유럽전구의 상황과 달랐지만 드류이는 적은 병력으로 적과 접촉한 뒤 큰 규모의 예비대³⁹⁾로 격멸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엄호망(overwatch)’ 개념에 부합하다고 보았다.

드류이는 베트남에서도 과거와 같이 적병력에 대한 강력한 타격과 병력보호를 위해 화력지원에 크게 비중을 두었고, 포병의 사거리 내에서 수행하는 작전을 선호하였다. 이를 위해 정확한 정보와 시기적절한 포병사격·전술항공타격 등 화력자산의 대응이 필요하였고, 무선통신·포병사격·헬리콥터·장갑차 등 제2차 세계대전보다 월등히 발전한 냉전시대의 기술력으로 부족한 병력·감시·베트남의 험한 지형 등의 제한사항을 보완했다. 하

38) 기계화/차량화된 보병을 탑승(mounted)보병으로 정의하고, 상대되는 개념으로 전투시 차량, 수송장갑차, 보병전투차 등의 장비에 탑승하지 않는 전통적인 개념의 보병을 비탑승(unmounted)보병으로 정의한다.

39) 드류이는 이 예비대를 2개 기계화보병대대인 탑승(mounted)보병으로 준비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지만 드퓌이는 헬리콥터에 의존하는 지휘와 이동은 미군의 전술이 지형에 대한 숙고를 경시하게 만들고, 포병·헬리콥터·전술항공기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압도적 화력우위의 과도한 의존이 전술적으로 나쁜 습관을 갖게 했다고 생각했다. 후일 드퓌이는 이런 베트남에서 만연되었던 소부대 지휘관·지휘자들의 위장·소음방지·무기배치 등의 기본적인 전술에 대한 경시풍조에 대해 “현대 전장에서 2초 동안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언급했다⁴⁰⁾

드퓌이는 이런 사단의 현실에 지휘관으로서 강력한 대응을 했다. 1년여의 짧은 재임기간 드퓌이는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 56명의 장교를 사단에서 해임시켰는데, 그중 7명은 대대장이었다. 큰 이슈가 된 이 사건으로 육군참모총장 해롤드 존슨(Harold K. Johnson) 장군이 직접 방문하여 장교들의 복권을 요청하기도 하였다.⁴¹⁾ 이렇듯 드퓌이는 불같은 성격과 무능력에 대한 혐오로 예하 장교들의 능력부족에 대한 관용이 없었다. 이처럼 주변인들에게 강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에 적이 많았고, 후일 그가 현역에서 퇴역하자 그의 업적들에 대한 폄하와 교리폐기가 주도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⁴²⁾

1967년 1사단 사단장을 마지막으로 드퓌이는 야전부대 지휘를 마쳤다. 하지만 그는 군대가 ‘어떻게 싸워야 하고, 어떻게 훈련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의 생각이 확립되어 있었다. 본질적으로 드퓌이에게 전투는 화력수단으로 상대 전력을 물리적으로 파괴

40) Herbert, *Ibid*, pp. 19~20.

41) Herbert, *Ibid*, p. 20. ; 보직해임은 자정쯤에 헬기가 해당 장교를 태우러 부대에 통보 없이 착륙하였는데, 당시 사단에서는 이런 상황을 “그가 드퓌이 되었다.(He was DePuyed)”라고 표현할 정도였다. Gole, *Ibid*, p. 172. ; 존슨 참모총장의 방문에도 드퓌이는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 않았으며, 이를 통해 참모총장과 불화를 겪었다. 이후 보병학교장의 직책을 원했던 드퓌이는 참모총장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Gole, *Ibid*, p. 173.

42) 남보람,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퓌이 장군 (하)-1976년판 미 육군 야전 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26일)

하는 것이었다. 아군의 전력을 보호하고 적을 효과적으로 파괴하기 위해 측면·후방·기습 공격 등으로 적의 취약점을 공략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를 위해 독일식 전술에서 영감을 받은 대로 적의 사격으로부터 아군의 전력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동화된 직사화기에 의한 적 화기진지의 제압과 신속한 기동을 중시하였고, 이같은 전술능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전투기술·무기배치·이동기술 등의 낮은 수준에서부터 임무형지휘·화력자산통합·작전시행능력 등 높은 수준까지 집중적인 교육이 필요했다. 결국 최종적으로 그는 포병·기갑·기계화보병의 제병협동(combined arms operations)을 기반으로 한 빠른 기동 전술을 완성하려고 하였고, 이와 같은 그의 확고한 전술관은 제2차 세계대전부터의 그의 경험과 육군 근무 경력 전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육군 전체를 바꾸려는 강한 의지와 결합되었다.

4. 교리·훈련 사령부 시기 : 육군을 바꾸다

가. 제4차 중동전과 전훈분석

1973년 드류이는 육군을 바꾸기 위한 본인의 강한 희망으로 신설되는 훈련·교리사령부(TRADOC)의 초대사령관이 되었다. 부임한 후 4개월여 만인 1973년 10월 아랍세력의 공격으로 4차 중동전이 발발하였다. 개전 첫날부터 이집트는 수에즈 운하 도하에 성공하였고, 이후 이스라엘 기갑부대의 반격을 격퇴하였다. 이집트군은 전술해도 견딜 수 있을 것이라던 모래벽 진지를 소방펌프로 간단히 허물어 2시간 만에 뚫고 방어진지를 구축하여

이스라엘의 기갑예비대를 상대로 대전차전을 수행하였다. 하루만에 이집트군은 AT-3(9M14) 대전차유도미사일(ATGM)과 통합항공 체계로 시나이반도에 배치한 이스라엘군의 전차 250여대 중 60%인 150여대를 파괴하고, 이스라엘군 보유 항공기의 약 10%인 35대를 격추한다. 최종적으로 3주간의 전투로 인해 이스라엘군은 전차 1,063대, 장갑차 407대, 항공기 109대의 손실을 입었고, 이집트와 시리아등의 아랍군은 전차 2,000여대, 장갑차 3,000여대, 항공기 516대의 손실을 입었다. 이러한 손실 수치는 3주간의 단기전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기갑과 포병의 손실량은 주유럽미육군의 전차와 곡사포 전체 재고를 초과하는 수량으로, 발전된 현대전의 치명성에 비추어 유럽전구에서 소련군과 바르샤바조약군에게 수적으로 열세인 미육군은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⁴³⁾

전쟁 직후 육군참모총장 에이브럼스 장군은 드퓌이에게 4차 중동전의 분석을 요구하였고, 드퓌이는 1975년 2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중동전쟁이 미군의 전술, 교리 및 체계에 미친 영향”이란 보고서로 군수뇌부에게 기밀 브리핑을 실시하였다.⁴⁴⁾ 드퓌이의 의지를 잘 정리한 이 보고서는 이후 TRADOC의 공식적인 교리작성 방향이 되었고, 이후 “훈련·교리사령부 전투작전 개념서 초안”⁴⁵⁾로 발전하여 ‘FM 100-5, 작전’ 1976년판의

43) 단순히 손실비로만 보면 이스라엘군의 대승이었으나 초기피해가 상당하여 개전 이전의 이스라엘 기존전력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미국의 대량 장비지원이 없었으면 패배했을 상황으로 유럽전구에서 즉각적이고 추가적인 장비 공급이 시간적으로 제한되는 미국입장에서는 더 큰 의미가 있었다.

44) “Implications of the Middle East War on U.S. Army Tactics, Doctrine and Systems”, *Letter to General Creighton Abrams from General DePuy*, Swain, *Ibid*, pp. 69~112.

45) *TRADOC Draft Concept Paper Combat Operations*, ‘FM 100-5, 작전’ 교범 초안의 최초 제목은 전투작전이었다. Swain, *Ibid*, pp. 122~135. ; 남보람, 「환영 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퓌이 장군 (중)-1976년판 미 육군 야전교범 100-5

개념초안이 되었다.

최초 TRADOC의 특별그룹이 이스라엘에서 본 중점은 4차 중동전이 새로운 형태의 현대전이었던 것과 이스라엘군의 질적·사기적 우위였다. 하지만 드퓨이가 보는 4차 중동전의 중점은 제병협동이었다. 기존의 이스라엘 기동부대는 속도를 강조하여 적진지를 공격할 때 전차를 선두로 최대속도로 이동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하였는데⁴⁶⁾, 당시는 공격해오는 전차를 상대하는 대전차포나 전차포가 빠르게 이동하는 전차에게는 명중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기존의 전장에서 좋은 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동하는 전차에서는 상대 보병의 식별이 제한되는 단점이 있었고, 이 단점이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대전차미사일을 준비한 적의 보병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었다. 전차로 적의 진지를 돌파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군은 근접항공지원으로 이를 타개하려 했으나, 아랍군의 이동식 방공전력에 의해 개전 하루에만 35대를 아랍군의 방공망에 상실하는 등 항공기의 피해가 극심하게 발생하자 이를 중단했다. 이스라엘군은 결국 보병·포병·기갑의 제병협동으로 아랍군의 진지를 돌파하고 방공전력을 제압한 이후에나 본격적인 항공력을 사용하여 아랍군의 중심을 파괴할 수 있었다.⁴⁷⁾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19일)

46) 제2차 세계대전부터 공격작전 시 전차를 선두로 진입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전술 선호도가 달랐다. 독일군 전술의 경우에는 주공방향에 重전차를 선두로 진입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소련의 경우에는 포병과 보병의 공격으로 어느 정도 적진지가 파괴된 뒤에 전차를 후속계대로 투입하는 것을 선호했다. 미육군의 경우에는 교리상 전차를 선두에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리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이 없지만, 제2차 세계대전시에 전차를 선두에 내세우고 전차를 방패삼아 보병이 따라가는 사례가 많았다.

47) 전쟁초기 이동식 방공망만으로 적극적인 운용을 한다면 상대의 항공력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기동작전이나 적의 주공을 막는 방어작전이 가능하다는 시사점이 있으며, 최근의 우크라이나전쟁에서도 비슷한 양상이다.

이렇듯 전차가 현대전장에서 대전차미사일로부터 생존하여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병과 포병의 제병협동이 필수였다. 역설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제병협동전투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4차 중동전은 현대전의 서막이었다면, 드퓨이에게는 제병협동전투 중심의 그의 전술관을 확인시켜주는 연속이었다. 과거의 대전차포는 현대의 '대전차미사일'이 되었고, 이스라엘군의 혁신적인 제병협동전투는 드퓨이의 '엄호망'(overwatch)이었다. 드퓨이가 중시하는 전투의 결정적인 요소는 기동성, 화력, 장갑보호 등이 가능한 전차가 적의 방어선을 돌파하여, 비교적 적의 후방에 위치한 지휘통제, 통신, 군수지원 등의 중심요소들을 파괴하여 간접접근방식으로 승리를 달성하는데 있었다.⁴⁸⁾

대전차미사일 같은 현대의 치명적인 대전차무기를 극복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과거 기갑병과의 관습같이 전차가 Y자, V자 형태의 대형으로 지면을 가로질러 정면공격하는 생각을 버리고, 보병전투차의 기관포와 포병화력의 지원하에 적 대전차무기를 제압하고 지형에 맞춰 은·엄폐 할 수 있는 대형으로 전투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미육군의 다수가 4차 중동전의 교훈으로 이스라엘군의 기술, 리더십, 규율, 동기, 용기 등의 추상적 개념을 중점으로 보는 것과 달리, 드퓨이는 구체적인 전술관으로 대전차화기를 제압하기 위한 보병전투차⁴⁹⁾를 배치하고

48) 박솔규, 상계서, p. 132. 비록 미육군내에서 4차중동전의 교훈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이 등장했지만 드퓨이는 그의 경험에 기반한 전차중심의 제병협동전투에 대한 확고한 선호경향이 있었다. 그는 한국전과 베트남전에서의 보병집약적인 전쟁을 예외적인 사례로 보았고,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유럽에서 근무하면서 전차를 통해 달성되는 돌파력과 연계된 측·후방 공격을 통한 간접접근 전략의 우위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다.

49) 후일 보편화될 보병전투차(Infantry Fighting Vehicle, IFV)개념의 시초인 이 개념은 기존의 단순한 이동성과 파편보호의 장갑만을 제공하던 만을 강조한 M113 같은 APC(Armored Personnel Carrier, APC)개념과는 달리 기관포를 탑재한 장갑전투차량이 전차와 함께 기동전투에 직접 참여하는 개념이다.

집중적인 훈련을 통해 우수한 군대를 만들고 싶어했다.⁵⁰⁾

나. 교리개발

드퓨이는 4차 중동전이 당시 미군이 대규모전면전인 중강도분쟁을 대비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⁵¹⁾ 다음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본인의 전술적 사고관을 바탕으로 미육군에게 일치된 전술적 사고를 형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 시급히 교리부터 출발할 수 있는 기준교범(capstone)인 FM 100-5 교범을 작성해야 한다는 하나의 큰 목표를 제시하였다.

교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TRADOC과 육군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많은 협의와 동의를 필요하였는데, 특히 독일육군과의 협의가 상당히 중요하였다. 유럽전구의 주전장인 서독 국경지대에서 유럽주둔 제7야전군과 독일육군과의 작전개념과 전술적교

50) 여기서 유의해야 하는 점은 드퓨이가 이스라엘 군의 기술, 리더십, 규율, 동기, 용기 등의 추상적 개념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여긴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평생에 걸쳐 전문성에 기반한 리더십을 강조하였고, 소부대 기술과 소부대지휘관의 역량의 육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 1976년 2월, 드퓨이는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4차중동전의 영향으로 군단에서 중대까지 모든 수준에서 문제와 도전이 수반되었으며, TRADOC은 육군 교리 전체를 위에서 아래로 재배치하고 재구성하는 프로그램에 착수하였다고 기술하였다. Swain, *Ibid*, pp. 179~183.

51) 베트남에서 미육군이 어떤 전투 경험을 얻었든 간에 미군이 베트남에서 누렸던 화력과 공군력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접하지 못하는 유럽에서의 전쟁과는 무관해 보였으며, 가장 발달한 항공수송의 중요한 혁신도 적의 방공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발전한 것이었다. 결국 베트남에서 10년간의 전쟁은 미육군에게 치명적인 전투력 약화를 불러왔다. Herbert, *Ibid*, p. 39. ; 하지만 베트남전쟁에 의해 추진된 미육군의 새로운 전장 기술과 교리에 대한 연구는 유럽의 재래식 전쟁과 우연히 관련된 많은 혁신을 만들어 냈다. Doughty, *Ibid*, pp 30~38. ; 화력지원 방법, 공군의 근접항공지원 절차 등은 대규모 전면전하에서도 유용한 전술이었으며, 특히 공군과 지상군 협조와 통제는 적극방어 교리 뿐아니라 공지전투 교리에도 큰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도 러시아군은 항공력의 지상지원을 위한 적 방공망제압, 전자전 등에서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개발한 전술에 미치지 못하는 미숙한 모습을 보였다.

리의 일치성을 필수적이었으며, 정치적으로도 미국은 서독을 단순히 전장지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독에게 국토를 방어 하겠다는 신뢰를 보장하는 정치적 수단이 필요했다. 독일의 FM 100-5격인 HDv 100/100은 전진방어 정책의 파생물이자 독일 교리의 핵심철학이기도 했기에 교리개발에 독일 HDv 100/100의 내용이 반영되는 것은 필수적이었다.

이러한 독일군으로부터의 교리 도입은 드퓨이의 선호도에 연유하기도 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강력한 독일국방군과의 치열한 전투경험을 기반으로 미국보다 발달된 전통적인 기계화부대의 교리인 기갑척탄병(panzergrenadier) 전술교리가 미육군에게 필요하다고 보았다.⁵²⁾ 독일군의 기갑척탄병은 기갑의 전차와 동반하여 전차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가능한 궤도형태의 장갑차량 보유를 추구하고, 신속한 기동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차량에 탑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그들은 제압사격이 가능한 자동화된 중화기들을 장갑차에 탑재시켜 가급적 하차보병들은 탑재된 중화기의 지원을 받는 전투를 수행하려 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적의 보병들이 운용하는 대전차포를 제거하는 것, 전차가 통과할 수 없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전차에 의해 우회되어 포위된 적의 저항세력들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반면 미군의 기계화보병 교리는 보병교리 개념에 머물러 있었으며, 보병학교에서 주관하고 기갑학교의 교리와 분리되어 있었다. 이러한 전술관과 교리의 본질적인 차이로 인해 독일군의 궤도장갑차량은 전차와 함께 화력전투수행을 위한 기관포탑이 탑재

52) Grenadier는 척탄병이라는 의미이며, 전열보병을 운용하던 근대에 수류탄을 멀리 던질 수 있는 체격 좋은 병사들을 의미였으나, 항상 선봉에서 전투하는 정예병을 뜻하는 관용어가 되었다. 이와 같은 기원으로 독일국방군의 사기 고양을 위해 아돌프 히틀러가 모든 보병을 '척탄병'으로 개칭하여 명칭이 부활했으며, 기갑 및 기계화 부대를 의미하는 전차(panzer)와 결합하면서 기계화보병을 의미하는 기갑척탄병(panzergrenadier)이 되었다.

된 HS30보병전투차(IFV)였고, 미군의 장갑차는 전장수송을 중점으로 최소한의 파편방호만을 위한 포탑이 없는 M113인원수송장갑차(APC)였다.⁵³⁾ 드퓨이는 평소 기갑척탄병 교리개념과 유사한 전술관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진행되고 있던 기계화보병전투차량(Mechanized Infantry Combat Vehicle, MICV)사업⁵⁴⁾의 지지와 함께 교리에 반영을 원했다.

드퓨이는 새로운 교리가 기존의 전통적인 보병병과의 ‘2.5마일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기갑병과의 데이비드 탐미넨(David L. Tamminen) 중령을 주축으로 하는 연구팀이 수행하는 워게임 시나리오인 훈펠트I(Hunfeld I)을 기반으로 교리개발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교리개발 동안 드퓨이는 물론 스타리와 고먼 등 주저자들의 전술관 등이 반영되었다. 스타리의 교리방향을 정리한 서한을 보면 최대거리에서 적본체 탐지, 선제사격, 대전차사격통제, 엄호망 하에서의 제압화력, 적방공망제압 등 기존의 드퓨이가 정리한 전술 개념에서 출발하였거나 거의 일치하였지만, 스타리의 방어에 대한 개념은 탐미넨의 워게임 결과를 기반으로 공격과 역습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드퓨이의 기존 전술관 하고는 약간 상이한 부분으로 스타리의 개념 초안은 방어 전력을 은폐전력지역, 주전투지역, 예비대로 구성하고 적에게 연속적인 대량 피해를 입히며 축차진지로 후퇴하는 전투를 암시하면서, 강력한 공격을 추가하여 역습으로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53) 1950년대 미군의 장갑차는 방사선과 낙진으로부터의 기밀밀폐기능, 1960년대는 파편방호에 중점이 있었다. 비록 1960년대 ROAD에 따라 용어가 ‘기갑보병’에서 ‘기계화보병’이 되었지만, 오히려 교리작성 권한은 기갑학교에서 보병학교로 전환되었고, 일반 보병교리의 변형 수준으로 정제되었다. Coffey, *Ibid.* ; Herbert, *Ibid.*, pp. 63~64. ; Doughty, *Ibid.*

54) MICV-65사업으로 1960년대 시작한 이 장갑차 획득사업은 1966년에 초도개발품인 XM701이 시험평가 완료되었으나 항공수송이 불가능한 중량문제로 채택이 무산되었다, 이후 소련의 BMP-1의 위협으로 MICV-70사업으로 재개되었고 M2브래들리 보병전투차 개발로 이어졌다.

주장했다. 반면 드퓨이의 개념초안은 역습에는 신중한 편으로 역습이 방어자의 고유한 이점을 포기해야 하고 실패의 위험성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역습자체를 필수적인 것으로 보지 않았다. 드퓨이는 방어에서의 중점을 스테리와는 달리 공격이 일시적으로 정체되어 정지한 적 전력에 화력으로 결정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차단진지(blocking position) 개념을 중점으로 선호하였다.⁵⁵⁾ 일단 스테리는 작성과정 동안 드퓨이의 방어개념과 유사함을 유지하였고, 두명 모두 적의 맹렬한 기갑공격을 막는 것을 우선시 했으며, 무기체계 분석에서 접근하였다. 'FM 100-5, 작전' 1976년판에는 드퓨이의 전술관이 거의 그대로 투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리의 초안 대부분이 반영되어 최초 제안한 '예비대' 개념만 '후방지역'으로 대체했을 뿐 전체적인 틀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 교범의 작성과 출판, 그리고 비판

1975년 10월 드퓨이는 1976년 상반기를 목표로 본격적인 교범 작성을 시작하였다. 2개월 후인 1975년 12월에는 예하 병과 학교장들이 작성한 초안을 제출받는 회의를 하였으며, 마지막 회의에서 교범의 각 장을 장성급 장교의 지휘 하에 작성하게 하고 작성결과를 전체에게 브리핑하게 하였다. 최종작성은 드퓨이, 스테리, 고먼의 주작성자가 종결하였으며, 교범의 초안본이 완성되자 드퓨이는 12월 육군지휘관 컨퍼런스에서 직접 브리핑을 함으로서 성공적으로 육군내에서 인증되었다.

완성된 교범은 7월 1일부로 인쇄가 시작되었고, 야전부대에

55) 차단진지 개념은 소부대를 매복하여 노출된 적을 탐지하고 강력한 포병화력으로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는데 그 목적이 있었고, 이 개념은 스테리 역시 '소규모매복(miniambushes)'으로 가지고 있었으며 고먼과 드퓨이의 전술관과 유사하였다.

15만부가 배부되었다. 교범이 배부되고 육군 내외부에 공개되자 교범은 중요한 사건으로 인식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치명적인 현대무기가 적용된 새로운 전술이라는 평가와 함께 논의의 새로운 쟁점으로서 군사전문 저널에 엄청난 토론을 촉발하였다. 교범에 대한 군사평단의 평가는 호의적이었고, 적극방어 교리를 찬성하는 쪽에서는 ‘교리 르네상스’로 찬사받았다. 하지만 찬사에 비견될 만큼 많은 비평이 나왔다.

여러 비판들은 미육군 내부에서부터 외부 평론가까지 다양한 출처에서 주장되었다. 초기 비판자들은 교범이 공격을 희생하면서 수비를 너무 강조하고, 아군과 적군의 전력 비율과 적군의 파괴만을 강조하면서 전쟁의 심리적 측면을 무시하며, 유럽에서의 전투를 중심으로 전세계적인 우발 상황을 배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밖에도 기동의 부족, 교범이 지휘관에게 강조하는 어조, 공세 강조의 부족 등 기존 미육군의 전통적인 교리방향과 다르다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원론적인 비판이 주로 제기되었다.

이후 수년간 교범에 대한 논란과 논쟁은 지속되었으나 드퓨이는 1977년 TRADOC 사령관을 마지막으로 36년간의 군생활을 마치고 퇴역하였다. 드퓨이 퇴역 후에 일종의 드퓨이 거부 의 일환으로 ‘FM 100-5, 작전’ 1976년판 적극방어는 육군에서 대체 요구가 거세었다.⁵⁶⁾ 육군참모총장 버나드 로저스(Bernard W. Rogers)장군은 후임 TRADOC 사령관 스테리 장군에게 대체교리의 개발을 요구하였고, 교범은 5년 뒤 걸프전을 승리로 이끈 것으로 평가받는 교리인 ‘FM 100-5, 작전’ 1982년판 ‘공지전투’로 대체되었다.

56) 남보람, 상계서(하). ; Kaufman, *Ibid*, pp.3~4.

5. 결 론

‘FM 100-5, 작전’ 1976년판 ‘적극방어’ 교범은 제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1930년대부터 이어온 미육군의 기존교리만을 답습한 1968년도 이전의 교범들과 비교하여 뻘한 원리원칙과 모호성을 과감히 탈피하였다. 이 교범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 월남전 등에서 성과를 보였던 드퓨이, 스테리, 고먼 등 뛰어난 저자들의 전술관과 워게임을 기반으로 개발하고 제시한 교리로서 진일보하였으며, 통계적이고 수치적인 무기성능을 기반으로 전장에서의 운용술을 가독성 높은 요점정리와 일러스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독자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드퓨이가 어떻게 싸울 것인지(how to fight), 그리고 어떻게 승리할지(How to Win Outnumbered, win the first battle)를 알 수 있는 교리를 개발했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적극방어 교리의 주작성자이자 퇴역한 드퓨이를 이어 TRADOC의 사령관으로 부임한 스테리 장군의 이렇게 “크게 오해된 적”이 없었다는 표현대로 드퓨이의 역작 '적극방어'는 본질과는 다르게 비평되었다. 드퓨이를 잘 아는 이들은 '드퓨이 거부'를 위해, 드퓨이를 모르는 이들은 드퓨이가 평생 강조하던 '공세, 기동, 인적자원, 소부대 주도성' 등이 오히려 간과하였다고 '드퓨이와 적극방어'를 비평하였다. 1976년 적극방어교리가 공개되고 수년간 들끓었던 논쟁 외에도 미국내 드퓨이의 연구가 상당히 진행된 걸프전 이후인 1990년대까지도 공세부족, 주도성이 결여된 중앙집권식, 화력소모전에 불가한 전술이라는 비평은 이

어졌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드퓨이는 유럽전구의 전투 첫날부터 독일국방군과의 격렬한 전투로 미육군의 포격행진, 정면공격 등과 같은 제1차 세계대전 수준의 낙후한 전술과 참담한 훈련과 인적자원에서 오는 장교단의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였으며, 은엄폐, 제압 등의 독일군의 뛰어난 전술과 전문성에 기반한 리더십을 교육이 아닌 아군 전상자라는 막대한 출혈로 느끼게 되었다. 그는 단순한 90사단의 불운과 경험으로 치부하지 않고, 그 기술을 받아들여 화력기지, 엄호망 등과 같은 본인의 전술로 만들었다. 이러한 그의 사명감과 같은 전술관은 가장 작은 제대부터 중요시하는 그의 관심으로 반영되었는데, 1958년에는 대령으로 소총분대의 본질에 대해 기술하고, 연대장으로 예하 소대장 한명을 몇 시간에 걸쳐 지도하고, 1967년에는 사단장으로 기관총 배치에 소홀한 대대장을 해임하였고, 1973년에는 TRADOC의 사령관으로 분대사격조에 대해 훈련부사관들에게 강의하는 열정으로 표현되었다.

드퓨이의 전술관은 사단급 이하의 소부대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세부교범이 아닌 육군의 기준교범인 FM 100-5의 교리로서 부족하다는 비평이 있다. 하지만 1968년도 이전의 교범들이 다룬 전술적 수준과 당초 1976년판의 초안을 작성했던 존 쿠쉬먼(John H. Cushman) 장군의 제시안인 ‘방어에서의 사단(Division in Defense)’의 제목만 보더라도 당시 미육군의 전술교리의 제대 수준이 사단 정도까지만 정립이 되었다고 보여진다. 이 같은 문제는 이후 공지전투 교리에도 이어져 기존의 적극방어에서 발전하였지만 군단급 정도까지 발전된 교리는 걸프전에서 야전군급·합동군급 수준을 요구하는 전장에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우리군의 경우에는 미군과는 달리 기존의 재래식 전쟁에서 대분란전의 전환이 없었고, 꾸준한 미육군과의 연합작전·훈련 및 현용교리·교범 연구를 논쟁과정 없이 결과물로서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대의 전투사례와 그에 적용된 기술이 반영된 新교리개발과 그간의 타국의 교리개발사 연구는 소홀한 편이다. 우리 역시 6·25전쟁이라는 큰 전면전 경험이 있고 군 및 학계에서의 6·25전쟁사 연구가 상당히 있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한 교훈이 교리로 반영되고 훈련되고 있는가 하는 점은 의구심이 든다. 또한 드퓨이가 중시했던 독일의 기갑척탄병교리와 미군교리에 반영시킨 기계화보병 교리의 철학과 논리적 흐름이 보며, 과연 우리군의 기계화보병 교리가 제대로 정립되었는지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교리작성과정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남보람,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중)-1976년판 미 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19일).
- _____, 「환영받지 못한 혁신가, 윌리엄 드푸이 장군 (하)-1976년판 미 육군 야전교범 100-5 [작전] 비하인드 스토리」, 『국방일보』(2018년 11월 26일).
- 박솔규, 「적극방어 교리는 어떻게 탄생하였는가? : 미육군 FM 100-5 작전 교범 1976년판 작성과정을 중심으로」, 『軍史』 126, 2023.(DOI : 10.29212/mh.2023..126.117)
- Brownlee, Romie L., Mullen III William J., Changing An Army An Oral History of General William E. Depuy, Retired, U.S. Military History Institute, Washington, D.C. : U.S. Army Center of Military History, 1988.
- Coffey, ROD A., Doctrinal Orphan or Active Partner? A History of U.S. Army Mechanized Infantry Doctrine,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2000).
- DePuy, William E., FM 100-5 Revisited, Army 30, no.11, 1980.
- Doughty, Robert A., The Evolution of US Army Tactical Doctrine, 1946-76,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79.
-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76).
- FM 100-5 Operations(Washington, DC :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1982).
- Gole, Henry G., General William E. DePuy : Preparing The Army for Modern War, The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2008.
- Gorman, Paul F., Cardinal Point: An Oral History — Training Soldiers and Becoming a Strategist in Peace and War, Fort Leavenworth

-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1.
- _____, Paul F., The Secret of Future Victories,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4.
- Herbert, Paul H., Deciding What Has to Be Done: General William E. DePuy and the 1976 Edition of FM 100-5, Operations,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88.
- Long, Jeffrey W., The Evolution of U.S. Army Doctrine: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and Beyond, Fort Leavenworth KS: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1.
- Kaufman, Aaron J., Continuity and Evolution: General Donn A. Starry and Doctrinal Change in the U.S. Army, 1974-1982,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2.
- Nyingi, Erick M., Complexity and Design Leadership: The Design of Active Defense and AirLand Battle Doctrines, Fort Leavenworth, Kansas : School of Advanced Military Studies, United State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2019.
- Romjue, John L., TRADOC Historical Monograph Series : From Active Defense to AirLand Battle: The Development of Army Doctrine, 1973-1982, Fort Monroe, Virginia : United States Army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1984.
- Swain, Richard M., Selected Papers of General William E. DePuy, Fort Leavenworth, Kansas : Combat Studies Institute, U.S. Army Command and General Staff College, 1995.
- Tamminen, David L., "How to Defend Outnumbered and Win", Field Artillery Journal, Fort Sill, U.S. Army Field Artillery School, 1976.

<Abstract>

How General William DePuy's experience influenced the development of the US Army's 'active defense' doctrine

Park, Sol-kyu

This thesis focuses on General William E. Depuy, the leader of the U.S. Army's doctrinal reform in the 1970s, and seeks to understand the philosophy and logic of the U.S. Army's ground force doctrine by studying how his tactical perspective was shaped by his experiences in World War II, the Vietnam War, and throughout his military career, and how he influenced U.S. Army doctrine.

During World War II, DePuy served as a member of the 90th Infantry Division, which suffered heavy casualties due to the U.S. Army's poor tactics and lack of training, and experienced intense fighting against the Germans. He uses this experience to develop his own tactics, such as 'Firebases' and 'Overwatch', and makes it his mission to lead reforms in the U.S. Army.

As the first commander of the newly formed Training and Doctrine Command (TRADOC), DePuy was tasked with rebuilding an 'Broken Army' by the Vietnam War. Drawing on the lessons of the Fourth Gulf War and a lifetime of tactical perspective, he and his supporters, Generals Pual F. Gorman and Donn A. Starry, developed a doctrine of 'Active Defense' that would enable the Army to fight and win against the formidable Soviet-Warsaw Pact forces, which was published in 1976 as FM 100-5, Operations. His doctrine of cover, suppression, maneuver, terrain exploitation, and firepower, shaped by the experience of World War II and the lessons of the Yom Kippur War, was met with both fierce praise and criticism upon publication, and

his innovative doctrine and contributions have become a great legacy of the U.S. Army.

Keyword: active defense, Army, doctrine, operations, unconventional warfare, DePuy, tactics, doctrine, combined arms combat